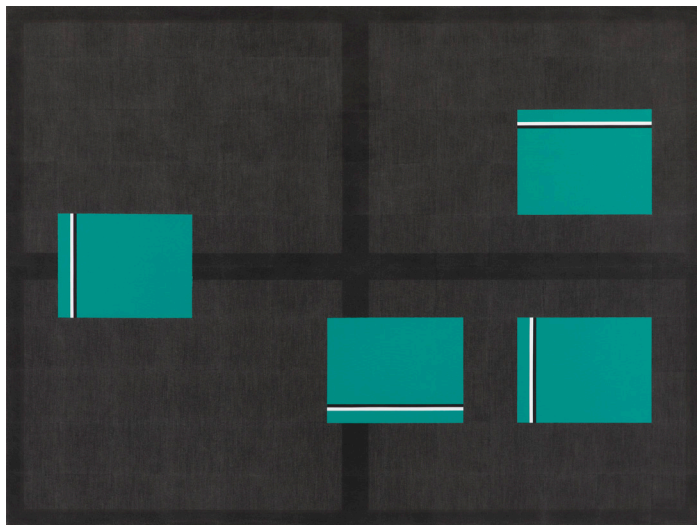


## 공간과 빛, 여백의 관계를 탐구하는 작업 집중 조명, 김아라 개인전 《단 하루도 이해하려고만 들면 긴 시간이다》

K스피릿 제공 | 2026. 2. 24. 22:41

김리아갤러리가 오는 3월 5일부터 개최하는 김아라 개인전 《단 하루도 이해하려고만 들면 긴 시간이다》는 작가가 그동안 축적해온 작업 세계를 본격적으로 조망하는 자리다.



Kim Ahra, Untitled, ink, acrylic and pigment on linen, 97×130.3cm, 2026. 김리아갤러리 제공

한국 전통 건축의 구조적 미감에서 출발해 평면과 입체, 이미지와 구조의 경계를 탐구해 온 작가는, 회화와 부조가 어우러진 신작들을 통해 자신의 조형 실험을 집중적으로 선보인다.

이번 전시에서 김아라는 이번 전시에서 먹과 린넨을 주요 재료로 활용한다. 린넨을 먹으로 염색하고 세척과 채색을 거치며 화면의 밀도와 깊이를 조절하고, 빛의 투과와 구조적 프레임이 드러나는 시리즈를 새로운 방식으로 전개한다. 얇은 직조 사이로 스며드는 빛은 화면의 농도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며 보이지 않던 구조를 드러내고, 분채와 안료, 아크릴을 겹겹이 쌓아 올리는 과정은 시간의 축적과 감각의 층위를 시각적으로 구현한다. 작가는 형식을 단순화할수록 오히려 감각은 더욱 깊어질 수 있다고 믿으며 재료와 과정 자체를 하나의 감각적 경험의 공간으로 확장하며, 이러한 태도는 반복과 절제, 침묵의 밀도를 축적해 온 아그네스 마틴(Agnes Martin)의 정신과 태도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확장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전시 제목은 프랑수아즈 사강의 『리틀 블랙 드레스』에 수록된 한 편의 절제된 문장에서 차용한 것이다. 이는 특정한 서사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한 장치라기보다, 작가가 자신의 작업 태도와 감각을 언어적으로 환기하기 위해 선택한 하나의 출발점에 가깝다.

김리아갤러리 이성현 큐레이터는 “ ‘공간 인식’에서 출발한 김아라의 작업 방식은 이번 전시에서 한층 더 깊어진다. 전시장 내 층별 채광 차이와 자연광의 흐름을 고려해 작품을 구성하며, 빛의 양에 따라 변화하는 어두움과 깊이를 화면에 반영했다. 공간에 따라 달라지는 밝기와 음영은 작품의 일부로 작동하며, 관람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른 인상을 만들어낸다”며 “ 작가는 작품을 단순히 전시 공간에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과 작품이 하나의 구조로 작동하도록 설계하며 회화와 전시 환경 사이의 긴밀한 관계를 구축한다고 했다.

이어 “전시장에 놓인 작업들은 명확한 서사를 제시하기보다, 관람객이 화면 앞에 머무르며 각자의 감각과 기억을 되살리도록 이끈다. 구조와 여백, 반복과 침묵이 공존하는 화면은 빠르게 소비되는 이미지 환경과 거리를 두고, ‘천천히 바라보는 시간’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김아라 작가 개인전 《단 하루도 이해하려고만 들면 긴 시간이다》는 김리아갤러리(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75길 5)에서 4월 4일까지 열린다.

[출처: K스피릿]

<https://www.ikoreanspirit.com/news/articleView.html?idxno=84084>